

<서평>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김동수

서울: 이레서원, 2008, 214쪽.

하경택*

1. 내용 요약

본서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방언의 본질에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알고 싶은 사람, 방언을 체험하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 방언을 과거에 체험했는데 현재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하지 않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을 몰라 실제로 방언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이상한 언어가 과연 바울이 말한 방언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방언에 대한 여러 의문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다.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자는 총 일곱 개의 장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장과 2장은 목회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이다. 제1장(“방언,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에서는 방언에 대한 잘못된

* 서울 장신 대학교 교수, 구약학

주장을 반박하며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제1장에는 저자가 방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것들이 농축되어 있다. 이 장만 보아도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강조점을 잘 알 수 있다. 방언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소개에 이어서 방언 중지설 반박, 방언을 한 맺힌 민초들의 아우성으로 치부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방언을 불신앙의 표지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제2장(“방언, 그것을 알고 싶다.”)에서는 방언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풀어준다. “방언 기도의 필요성, 다양한 방언 현상들, ‘새 방언’(막 16:17)이란 무엇인가?, 누가 방언과 바울 방언의 차이점과 공통점, 방언 통역이란 무엇인가?, 방언의 유익, 방언은 누가 체험하는가?” 등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제3장(“방언,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에서는 방언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지, 어떤 사람이 방언을 체험하는지 말한다. 방언 받았을 때의 상태와 느낌을 소개한 후 방언을 체험하기 위한 지침들을 제공한다. 이 장의 끝에서는 방언을 체험한 사람들이 방언 체험 후 어떻게 그 방언을 유지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제4장(“방언, 하늘의 언어가 맞다.”)은 이 책을 저술한 직접적인 동기가 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현의 『하늘의 언어』(서울: 규장, 2007)가 출판되어 방언 열풍을 일으키자 이에 맞서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책이 출판되었다. 옥성호의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8)란 책이다. 옥성호의 책은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인으로서 은사 중지론 입장에서 일관되게 방언론을 전개하고 있는 최초의 저서다. 앞의 두 책이 신학자가 아닌 평신도가 쓴 방언에 관한 책이었다면, 본서는 신학자, 그것도 방언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가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자는 제4장에서 방언을 부정하는 옥성호의

입장을 반박하며 그 입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저자는 먼저 옥성호의 비전문성을 지적한다. 신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전문서적을 읽고 식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학적인 전문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을 지적한다. 옥성호에게 나타나는 아마추어적 성서 해석의 문제점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 특별히 옥성호의 주장 가운데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성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하며 그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준다.

- 1)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읽었다(34).
- 2)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들뿐이다(47-49).
- 3) 방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다(67).
- 4) 바울이 주장한 방언은 외국어였다(101).
- 5) 방언 통역이 있다는 것은 방언은 실제 언어라는 뜻이다(181).
- 6) 하나님은 폐품을 쓰지 않는다. 방언은 이방 신전에서 쓰던 폐품이었다(199-200).
- 7)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지 후대의 모범을 위한 것이 아니다(82ff.).

저자는 또한 옥성호가 신학 부문에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순과 과장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은사 중지론자들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온전한 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준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 13:8-10)에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게 되는 “온전한 것이 오는 때”는 성경이 완성되는 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예언이나 방언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더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생애, 근시일 내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바울이 300년 후에나 정경화 과정이 완성된 성경의 완성을 어떻게 예견하여 그 말을 썼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계속해서 옥성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옥성호가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방언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그의 이력이 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옥성호가 취하고 있는 은사 중지론의 입장은 증명되지 않은 전제들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방언을 해석하는 핵심구절이 될 수 있는가?”, “성경 교리는 설명하는 부분보다 교훈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가?”, “신약 성경 이전에 유대교나 헬라 문화에서 성경과 같은 종류의 방언이 존재했는가?”,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체험과 말씀은 항상 대립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등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저자에 의해서 이 모든 질문들은 ‘아니다’로 답변된다. 그러므로 은사 중지설이야말로 이제 중단되어야 할 주장이 되는 것이다.

제5장(“방언 체험은 말씀 체험이다.”)에서는 존 맥아더를 중심으로 방언 중지론을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존 맥아더는 자신의 책 『무질서한 은사주의』 (Charismatic Chaos)에서 은사 중지론적 입장을 펼친다. 그는 바울은 방언을 규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며, 방언의 은사는 그친 은사이며, 언어가 아닌 현대 방언은 가짜이며 지금의 방언은 성경이 아니라 체험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개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은사주의자들’인가 반문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방언 중지론이야말로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며, 체험과 말씀은 함께 같이 가야할 신앙의 요소들이라고 반박한다. 저자는 체험과 말씀의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데 말씀을 제대

로 이해하려면 체험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6장(“이것이 바울의 방언관이다.”)과 제7장(“이것이 누가의 방언관이다.”)에서는 바울과 누가의 방언관을 각각 다루고 있다. 먼저 바울의 방언관을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2-14장에 대한 해석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고린도전서 12-13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방언 은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진다(12:7). 둘째, 모든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방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12:30). 셋째, 방언은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 신자에게 필요한 은사이다(13:8). 따라서 방언 은사는 성령이 각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은사로서 여타 은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2-13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말했다면,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상술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친다. 1)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길을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14:1a). 2) 성령의 은사는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14:1b; 참조, 12:31b; 14:12). 3)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언의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4:1c). 이어서 2-5절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직접 비교하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유익의 폭이 더 넓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언이 본질적으로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라는 의미는 아니다. 교회가 세움을 입기 위해서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 한에서 더 좋고 나뉘어 있을 뿐이지 방언과 예언의 본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6-25절에서는 앞의 말을 심화시키고 예증한다. 공동체의 예배 안에서는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무익하다고 지적한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사용될 때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세움을 그 목표로 해야 한다(12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한다(13절). 이어서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14-15절). 여기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양자택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다 취할 사항이라고 강조한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39-40절). 결론적으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잘 살펴서 방언과 예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우열을 논한 적이 없으며 단지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의 일부로 이 은사들이 사용될 때를 상정하고 논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가의 방언관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방언 현상에 대한 평가이다. 저자는 우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들을 평가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오순절 성령강림에 방언이 터진 것이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언약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언어의 혼란을 겪은 바벨탑 사건의 전복인가, 선교를 위해서 기적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얻게 된 사건인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는 축복과 심판의 사건인가, 신자가 성령세례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우선적 육체적 증거’인가,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땅에서 일어날 징조인가 등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성들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방언은 단순히 외국어라고 한다거

나 듣는 사람이 체험한 기적이나 상징 언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누가에게는 ‘다른 방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이 성령충만으로 발생하는 예언의 일종”이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것은 “습득 과정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언어기적”이라고 저자는 결론짓는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언적 영감을 받아서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령세례요 방언이라는 것이다.

2. 평가

이 책은 한국교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었던 방언에 관한 논쟁에 하나의 지침 기준을 제시한다. 방언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증명하기 곤란한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정통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신학자가 방언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기반으로 저술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만큼 신뢰성을 갖게 하는 책이다.

특별히 이 책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핵심적 근거로 삼고 있는 고린도 전서 13장 10절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고 정경이 확정된 지금의 시대에는 예언이나 방언 현상이 더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이다.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완성 시기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한 것일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한 것이 온 지금에는 예언도 없고 지식도 없어야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말씀을 중시한다고 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요한 문제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 책은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 책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방언은 외국어다”라는 명제를 반박한다. 만약 방언이 인간이 쓰는 외국어였다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언급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분명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언이 실제 외국어였다면 방언하는 사람에게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전 14:13)는 바울의 권면이 적절치 않게 여겨진다. 방언이 당대에 사용된 외국어였다면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통역으로 쓰면 되자 굳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외국어였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기보다 그러한 외국어를 배우라고 했을 것이고, 배워서 습득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똑같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어찌면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옥성호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을 방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책망과 풍자라고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옥성호,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174-175).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너희 중에는 정신(마음)은 관계없이 영으로만 기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면서? 참으로 대단하구나. 너희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그러나 저자는 동일한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양자택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양자 모두를 다 취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방언을 하는 입장에서 방언만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기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75). 전혀 다른 결론이다. 전자는 방언 비판에 관한 진술로 후자는 방언 긍정에 대한 진술로 이해한다. 이것은 성서 해석에서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전이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본문의 맥락에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한다.

이 책은 방언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자 노력하는 방언 은사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방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방언 통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옥성호는 자신의 책에서 방언 통역에 일어나는 문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옥성호,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185-187). 방언 통역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언을 녹음한 후 통역 은사를 받았다는 일곱 명의 사람에게 들려주고 통역을 요청했는데, 일곱 가지 통역 중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아프리카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방언 통역을 맡은 사람이 별떡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 형제가 방언으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언 은사론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역 은사를 받은 A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통역을, 또 B에게는 그에게 적합한 다른 통역을 허락하신다는 주장으로 방언 통역의 불일치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방언 통역의 은사야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내용이다. 방언 자체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은사지만, 방언 통역은 타인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자는 방언 통역이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67)이라고 말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는 일일 것이다. 저자는 “분별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분명히 자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67)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에서 은사 활용자들의 자질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은사자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한다. 은사는 어떤 특권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방언 은사론자들은 방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방언 사용과 활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방언은 구원과 상관이 없고 “방언=신앙 성숙”이라는 도식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웬지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성령 세례의 증거로 보아 방언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방언은 신앙성숙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라거나 구원의 증표라고 말할 수 없다. 방언은 신앙의 계급이나 훈장도 아니다. 방언 은사 없이도 얼마든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방언은 신앙 성숙을 위한 도구라고 잘 가르쳐야 한다. 신앙 성숙이란 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신실한 자가 되는 것”(42)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가진 자들은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봉사해야 한다.

한국교회에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과 같이(고전 1:22) 눈에 보이는 은사를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현시대는 검증되지 않은 갖가지 잡다한

영적 은사론이 난무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본서가 출판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를 금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전 14:39-40).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때, 방언은 개인과 교회를 세우는 데 커다란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가 될 것이다.